

4·27 재보선 D-30 ... 4대 관전 포인트

① 손학규-정운찬 대결 이뤄질까

4·27 재보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강원도지사과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를, 순천 국회의원 선거 위주로 펼쳐지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있어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

◇'손학규-정운찬' 대결 성사되나=한나라당의 정운찬 전 총리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대결이 이뤄지면 이번 선거 최대 흥행카드가 되겠지만 아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손 대표의 출마가 미지수고 정 전 총리의 출마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분당을에 출마할만한 인사를 찾지 못할 경우 손 대표의 출마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한나라당에서 정 전 총리를 전략공천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한나라당 내 반발이 여전하고 신정아씨 자서전 출간에 따른 도덕성 논란으로 이미 출마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물론 손 대표가 분당을에 출마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야권연대 바람' 부나=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야권 후보단일화의 위력이 입증된 만큼 민주당 등 야4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의 입장이 이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어찌 됐던 야권은 연대를 통해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이는 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역에 따라 야권연대 영향이 달리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의 파괴력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이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야권의 단일화 논의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승패 기준=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분당을은 한나라당, 강원지사 및 김해읍은 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1승(분당을),



27일 강원 강릉시 단오문화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예비후보들과 손을 들어 당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 야권단일화 야4당 입장차 여전... 진통 계속

③ 승패 기준 강원지사 보선 전체 기준될 듯

④ 잠룡들 썬범 결과 따라 대권주자 지형 변화

민주당이 2승(강원지사, 김해읍)을 거둔다면 '무승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의 의미가 큰 만큼 승패 기준이 애매한 상황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분당을 사수'가 필수다. 다른 2곳에서 승리하더라도 2곳 중 어느 1곳에서만 승수에 실패해도 패배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류 측에서는 선거의 핵심은 강원도이기 때문에 이곳의 승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잠룡들 썬범 복잡' = 재보선 성적표는 손 대표와 야권의 정 전 총리, 김태호 전 지사는 물론 다른 대선주자들의 향후 입지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손 대표로서는 이번 재보선이 대권행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제동이 걸리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정 전 총리는 출마할 경우, 승패에 따라 미리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평가받게 되고, 김해읍에 출사를 단진 김 전 지사는 야권 후보에 단일화라는 높은 과제를 넘어서느냐에 따라 정치적 중립감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김해를 선거 결과에 따라 그 비중을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보선 직후 소폭 개각할 듯

유정복·이만의 장관 후임 본격 인사검증

'장수 장관'과 국정원 1·3차장 교체 검토

4·27 재보선 직후, 소폭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구체적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후임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장관의 경우 친이계 홍문표 전 의원과 친박계 이인기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장관에는 정남준 전 행정자치부 차관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의 중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이 대통령 취임때부터 재임해 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장수 장관'에 대해 교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의 경우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들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유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농식품, 환경, 국토, 기재 장관이 우선 교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들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의 배경은 새로운 진용으로

민생을 돌보자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정보 라인의 대대적인 정비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지난번 인도네시아 특사단 속속 잠입 사건과 관련해 김남수 3차장의 사표를 받았으며, 재임기간이 오래된 외교교통상부 출신 김숙 1차장도 주요국 대사로 나가는 것을 고려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실의 경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 대사들과 청와대 일부 비서관,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분당을 '先 영입 後 출마'

박지원 "후보 찾는데 최선"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27 분당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우선 후보 영입에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길 수 있는 인제 영입에 매진한 뒤 그래도 적임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출마를 결단하는 '선(先) 영입, 후(後) 출마' 기조로 파악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강원도지사 선거 등 재보선 전체 전략 차원에서 볼 때 당대표가 출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지금은 후보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실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 한 측근도 "지금은 후보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출마는 그 이후에 생각해 봐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손 대표 특보단장인 신학용 의원은 "분당에 나와선 안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일단 후보를 찾는 데까지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손 대표의 분당 출

마를 마치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정치권 분위기와는 다른 것으로 실제로 손 대표는 매주말 분당을 출마가 가능한 인사를 만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분당에 손학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비례대표인 전현희 의원과 윤덕홍 전 교육부 장관도 당이 어렵다면 희생할 각오가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전 의원은 영남 출신에 서울대 치대를 나온 변호사란 경력과 이미지와 맞물려 영남 출신민과 고소득층이 많은 분당 후보로 어울린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일본서 입국 80%

방사능 검사 안받아"

일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의 80%가 방사능 피폭검사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하고 있어 2차 오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27일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인천·김포공항 등에서 일본 발 입국자에 대해 피폭검사를 하고 있어,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입국자 중 수검자는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피폭자가 밀폐된 항공기에서 승객들과 함께 있으면 2차 오염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일본과 협의를 거쳐 하루빨리 한국행 승객에 대해 일본현지에서 방사능 오염 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道선관위 '재보선 투표율 높이기' 다양한 홍보

전남도 선관위는 다음달 27일 치러질 순천 국회의원·화순군수·목포시의원 등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율 및 유권자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 선관위는 화순군수 재선거와 관련, 28일 오전 10시 화순읍 광덕문화광장에서 시민·사회·종교단체 회원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현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관·단체 대표가 김해를 선거 결과에 따라 그 비중을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에 서명한 뒤 공명선거 거리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순천시에서는 28일 오전 9시 순천우체국 앞 광장과 30일 오후 (유) 시민교통 회의실에서 집배원과 택시 운전기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이통홍보단 발대식을 갖는다. 선관위는 순천우체국 집배원 85명과 (유) 시민교통 택시 운전기사 130명을 '공명선거 이통 홍보단'으로 위촉하고 오토바이 및 택시(70여대)에 투표 참여 홍보 깃발과 스티커 등을 부착·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Debt recovery specialist). It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land in Gwangju, Jeonnam, and Gwangju, and houses in Gwangju. The ad also features a table of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새한신용정보(주)' (Sae Han Credit Information Co., Ltd.).